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

김 성 일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의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때문이다.

국가건설과 사회발전, 혁명투쟁을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추동력에는 과학기술도 있다.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며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강성국가는 과학기술뿐아니라 문학예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과학기술과 함께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예술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도 대신할수 없다.

오늘날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나라 인민의 정신력이다.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은 국가건설과 사회발전, 혁명투쟁의 기본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이 건인불발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심장에 지펴진 혁명적인 사상정신의 불씨에 의하여 타번지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비약의 불바람이다.

인간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 기적을 낳게 된다.

인간의 정신력은 저절로 발휘될수 없다.

숭고한 정신으로 충만되고 심장이 불타올 때 인간은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수단이 다름아닌 문학예술이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혁명적인간으로 키우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정치사상교양수단, 선전선동교양수단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있는 수단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목표가 매우 거창하고 방대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각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드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람들을 강성국가건설에 한몸 다 바치

도록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작품들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새형의 인간전형을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한다.

문학예술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써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간의 지향,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낸다.

현실반영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예술은 사람들에게 현실세계를 인식시키며 그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정을 떠난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한 사상교양사업도 있을수 없다. 우리 당에서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결합시키고 선전과 선동을 결합시키는것도 바로 이런 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문학예술은 그 인식교양적기능으로 하여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인민들의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력사발전의 진리를 깨닫고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가진 참다운 혁명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을 통한 인민대중의 사상발전은 정신력발양의 무한대한 원천으로 된다.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힘과 용기, 신심과 랑만을 주어 그들을 영웅적위

훈으로 고무추동하기때문이다.

우리의 리상인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사람들의 사상, 정신력을 발동하여야 한다. 사상과 신념의 위력, 불굴의 정신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특질이며 백승의 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는 없다.

사람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문학예술은 커다란 역할을 논다.

참신하고 진취적인 문학예술은 대중의 감정에 강한 충격과 자극을 주고 격동시킴으로써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킨다.

감정은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현상으로서 인간의 사회적실천활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에 따라 활동에서 열성을 낼수도 있고 내지 않을수도 있다. 기쁨, 책임감과 같은 적극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활동을 추동하며 슬픔, 락망과 같은 소극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활동을 저해한다.

인간이 어떤 사회적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열렬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언제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투쟁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이 동반된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문학예술은 추상적인 개념과 리론적인 해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린다.

참된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정서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리성뿐아니라 감성에도 적극 작용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어 그들을 영웅적인 투쟁으로 불러일으킨다.

노래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힘과 열정을 안겨주며 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혁명적인 노래가 원쑤들의 심장을 꿰뚫는 총 폭탄과 같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풍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며 온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한다.

혁명적인군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다.

사회적분위기는 집단활동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집단안에 명랑하고 씩씩한 기분이 지배적이면 집단의 화목과 단합이 보장되고 집단성원들의 창조적능력이 높이 발휘되며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위하여 투신하는 기풍이 수없이 발휘된다.

우리 나라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 때와 천리마운동을 벌릴 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단하였다. 그때에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 할것없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의 노래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근로자들이 일터에 오갈 때에는 줄을 지어 북과 팽과리를 울리면서 씩씩하게 걸어다니었으며 월참에는 모두가 떨쳐나서 흥겨운 춤판을 벌리곤 하였다. 말그대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으며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동하고 힘이 용솟음쳐 벅찬 투쟁속에 뛰어들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이처럼 높았기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저조하고 우울하거나 실망적인 기분상태가 집단안에 존재한다면 거기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분위기를 좋게 조성하여야 집단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고 온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자면 좋은 문학예술작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문학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랑만이 흘러넘치게 하며 혁명할 생각, 투쟁할 생각, 창조할 생각이 저절로 나게 한다. 그에 따라 생활은 더욱 흥겹고 명랑하게 되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된다.

특히 대중적인 문학예술활동은 생활자체를 보다 보람차고 낙천적으로 만들어 집단안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생활분위기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예술이 사람에게 주는 양양된 정서는 개별적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학예술에 반영되는 참된 인간전형의 모범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것으로 보편화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을 펼치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한다.

문학예술이 사회의 사상정신상태를 전반적으로 일신시킨다는것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증명되었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 진행되자 군인들과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온 부대가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공연이 거둔 성과는 여기에만 있지 않았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커다란 사상정신적영향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군인들의 전투적사기를 양양시켰으며 사회에서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확립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는데서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이 큰 기여를 하였다는것은 력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이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솟게 하였으며 적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퇴성으로 되었다.

오늘 누구나 사랑하는 모란봉악단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은 온 나라 천만군민을 새로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시대정신과 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들고나온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스고 창조와 혁신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예술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풍만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여 그들의 투쟁을 직접 추동한다는데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

문학과 예술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정신적무기이다.

문학예술이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고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자신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다 바쳐야 할것이다.